

정통부 중장기 IT산업 육성계획

IT839 전략 안정적 추진... 동북아 IT허브 본격 조성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인프라·제조업이 동반성장하는 IT839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 결과 IT 산업은 생산 241조원, 수출 747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각각 18%, 30% 증가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5개의 해외 R&D 센터를 유치해 IT허브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IT839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IT허브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글 송유중 정보통신부 혁신기획관

최 근 우리나라 IT산업은 이동전화의 변호 이동성을 시행해 314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디지털 TV의 전성방식 논란을 종식시켜 DTV 보급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세계 최초로 휴대인터넷(WiBro) 시제품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상용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5년 IT839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과 '지능기반사회(u코리아)'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선진한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5대 정

책목표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IT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IT협력 강화 ▲우정서비스 혁신으로 정하고 14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림 1〉 2005년 정보통신 비전 및 정책목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광대역통합망(BeN), 전자식별·u-센서네트워크(RFID·USN),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IPv6) 등 3대 첨단 인프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수요창출 및 산업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광대역통합망사업의 경우 2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영상전화와 주문형 인터넷콘텐츠(iCOD)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전자식별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용시험환경 구축과 휴대전화 내장형 RFID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통신망과 통신사업자 유선 상용망에 IPv6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국가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u코리아 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초고속망 미보급 지역(24만가구) 해소, 소외계층 정보이용시설 확대(30→46개소),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만3,000대)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도 강화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동IP를 이용한 대량 스팸 발송 차단, 휴대전화 광고에 Opt-in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스팸메일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정부 CITO(Chie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ITO는 국가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IT정책을 종합 조정하며 전문기술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IT분야의 최고 책임자를 일컫는다. IT기술과 BT·N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시범사업과 국가정보화 평가체계에 의한 시범평가를 시행하며, 국가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전산센터를 통합하는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은 제1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제2센터의 부지구입과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IT인프라 개선효과가 큰 행정·지식DB 확충과 교통·물류 시스템 개선사업 등에 4,171억원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IT산업 경쟁력 강화

올해 중 휴대인터넷 상용제품, 지상파DMB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기술, 통신·방송 융합 흡서버, 조연급 디지털 액터, 나노 임베디드 운영체제, 이동통신용 저전력 핵심칩, 개방형 텔레매틱스 단말SW,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입는 컴퓨터 시제품 등도 개발한다.

아울러 올해를 SW, 시스템 통합(SI), 온라인게임, 모바일 콘텐츠, 지식정보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고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패키지SW 산업 육성을 위해 정품SW 구매환경 조성과 공개SW 시범사업 확대(8→10개)로 2010년까지 국산화율을 18→40%로 높이고, SI산업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100대기업을 1개에서 5개로 늘릴 방침이다. 세

계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2.4%→5.0%로 확대하고, IT컨설팅 등 지식정보서비스 수요 창출과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IT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IT중소·벤처활성화대책(IT SMERP)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1만7,000여 IT중소·벤처기업 경영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유사산업군별 전문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영·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재교육(1,200명), 공동 활용 서비스를 확대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 구매·판매·수주 관행 개선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전력투구 할 것이다.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유비쿼터스 사회를 주도할 8대 통신·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에 올해 중 ▲휴대인터넷 시험서비스 실시 ▲위성 및 지상파 DMB 본방송 실시 ▲홈네트워크 150만가구 보급 ▲W-CDMA망을 23개 주요도시로 확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인프라 구축 ▲교통·환경분야 등에 9개 RFID 시범사업 실시 ▲지상파 DTV 시군지역 확대 ▲인터넷전화(VoIP) 이용자 100만명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전파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통신·방송 융합추세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기회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M&A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며,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제도화를 완료하고 전자파역기능 방지 종합대책과 통신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지침 등을 마련하여 통신전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분야	2005년	증장기계획
와이브로	IEEE 세계표준(제정 2분기) 시험서비스실시 4분기	900만 이용자 확보(~2011)
DMB	DMB 상용서비스(개시 2분기)	전국 지상파 DMB 개시(~2006)
홈네트워크	BcN/IPv6 연동(완료 3분기) 150만 가구 보급(연말)	1,000만 가구 보급(~2007)
텔레매틱스	단말기 플랫폼 표준화(착수 1분기) 제주도 상용서비스(개시 1분기)	400만 차량에 보급(~2007)
RFID	9개 분야 시범사업(완료 4분기) 태그/리더 성능 검증(완료 4분기)	u-Life 보편화(~2010)
W-CDMA	23개 주요 도시 망 구축(연말)	시지역 전국 망 구축(~2006)
지상파 DTV	시·군지역 디지털방송(개시 4분기)	디지털방송 전국 실시(~2006)
VoIP	상호접속제도(제정 2분기) 이용자 100만 확보(연말)	400만 이용자 확보(~2006)

〈그림 2〉 8대 통신·방송서비스 본격 추진

글로벌 IT협력 강화

동북아 IT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IT 콤플렉스(콘텐츠)외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7,907억원(정부부담 3,207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지역에 RFID·USN산업에 특화된 IT허브도 구축한다. 송도 IT허브에는 세계 유수의 RFID·USN 기업이 진출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설계·제조, 조립·시험실이 들어서고 전시회, 국제회의, 컨설팅, 지적권 관리, 디자인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된다. 이미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IT 콤플렉스(콘텐츠)는 올해에 기초공사 등의 공정률을 19%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청, 원주·강원,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 제주 등 각 권역별로 BT+IT, 내장형SW, 광통신 등 지역산업과 IT가 접목된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IT주재관 확대 등 IT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T839 차세대 품목에 대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한다. IT 코리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IT분야가 경제외교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을 활용해 국내 I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IT 지역 협력을 한·중·일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중남미 등으로 확산하고, APEC 정상회의(11월 부산) 기간중 휴대인터넷, DMB 등 IT839 핵심기술·서비스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우정서비스 혁신

이와 함께 올해는 사업수지 흑자 316억원, 공공서비스 고객 만족도 7년 연속 1위를 목표로 우편물류 프로세스 개선과 우체국금융 편익 증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객불만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우편물류 인프라 확충에 351억원을 투입한다. 비정규직 집배원 864명도 정규직화 할 것이다. 아울러 우체국금융의 전자금융 이용률을 55%까지 확대하고, 우체국보험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검사 및 인터넷 공시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을 높일 계획이다.

또 통신사업특별회계(우정부문을 '우편회계'와 '예금회계'로 분리해 각 사업별로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관리를 강화해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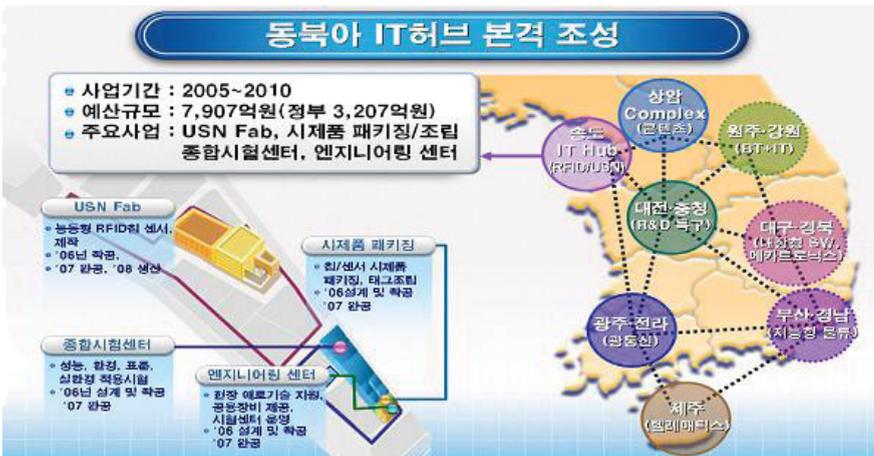
역점추진 혁신과제

지난해에는 혁신사례 창출에 중점을 뒀으나, 올해에는 혁신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아 혁신이 공식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해 도입한 민간경영기법인 CEO미션제를 정보통신부 산하 6개 산하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지난해 예산총액의 3%를 자진 삭감한데 이어 올해에는 예산사업 항목수의 10%를 조기 종료하고 실시간 재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정책관리시스템(GPLCS)에 문서관리카드 기능을 보강하고, 조직 운영측면에서는 지난해 정부 최초로 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SW진흥, 통신·방송융합 기능을 강화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푸른바다와 IT산업

최근 '푸른바다 전략(Blue Ocean Strategy)'이란 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치혁신(Value Innovation)이론의 창시자인 프랑수아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김위찬 교수와 르네 보안교수가 공저한 책이다. 푸른바다 전략에서 저자는 시장공간을 '붉은 바다'와 '푸른 바다'로 구분하고 있다. '붉은 바다'에서는 기업이 기존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서 경쟁사의 영역을 빼앗아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익과 성장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푸른 바다'는 개발되지 않은 시장공간으로 누구든 먼저 선점하면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국내 IT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45%, 휴대전화 28.8%, LCD 41.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먼저 푸른바다를 창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 시장은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붉은 바다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해답은 여전히 IT산업에 있다. 최근 디지털컨버전으로 텔레매틱스(IT+자동차), 홈네트워크(IT+건설+가전), 인터넷·모바일 뱅킹(IT+금융)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경제를 먹여살릴 새로운 푸른바다는 IT산업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역량과 지혜를 IT산업에 결합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은 곧 우리 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



(그림 3) 지역 특화 IT클러스터 단계적 구축